『BOK경제연구』 2024-7호 요약

2024년 7월 12일 (금)

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 변화

허준영·채민석

1. **최근 미국 등에서 고물가와 tight한 고용시장 상황이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의 tightness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.** 노동시장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통화정책의 노동시장을 통한 전달경로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. 따라서, 본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, 그리고 통화정책 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.

2. **우선, 본고에서는 노동시장 변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업률이나 실업률갭 대신 빈일자리율을 사용하였다.** 이는 우리나라 실업률 지표의 특성 및 정책여건 상 실업률 지표가 노동시장 상황을 비대칭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와의 관계도 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.

3. **분석 결과 노동시장 tightness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점점 증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와 같은 변화는 인플레이션 수준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.** 시변모수 벡터자기회귀(TVC-VAR) 및 rolling window VAR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, 노동시장 tightness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 이후 최근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노동시장 tightness 증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반응은 인플레이션(YoY)이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을 상회하는 시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. 한편, 통화정책 변화가 노동시장 tightness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간에 대해 더욱 도드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4. **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볼록성(convexity)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며,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 빈일자리율의 감소보다 인플레이션의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.**

문의처: 조사국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 (☎02-759-4434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